

전쟁에 반대하는 예술가들의 목소리

갤러리 생각상자 4월 30일까지 '두 개의 깃발전' 고근호·류범열·박건·박소산·박재동 등 13명 참여

3·1절, 광주에서 의미있는 전시가 개막했다. 오는 4월30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광주시 동구 남문로 628)에서 열리는 '두 개의 깃발전'이다.

이번 전시는 2020 도쿄올림픽에 욕일기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IOC의 결정에 분노하며 "문제가 있다"고 예술가들이 발언하는 기획이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모두 강렬하다. 나치의 깃발과 일본 욕일기, 아베 총리 등을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들이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은 수의를 입고 있는 유관순의 초상(주홍 작)과 서동환 작가의 김구 초상이다. 일제 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는 그들의 모습이 숙연하다. 또 사려하는

히틀러의 모습과 아베 총리의 모습을 함께 담은 사진에 '역사가 반복되길 원하는가'라는 글귀를 담은 김문성 작가의 작품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최인선 작가의 작품도 눈에 띈다. 그밖에 홍성담 작가는 화투패를 이용해 아베 총리의 모습을 풍자한 작품을 선보이며 오종선 작가는 조각 작품 '깃발'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에는 고근호·류범열·박건·박소산·박재동·이하승지나·배민신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를 기획한 주홍 작가는 "욕일기는 나치의 깃발과 같은 전범기고, 대량학살을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아시아 침략과 학살에 반성 없는 일본 정부에 예술적으로 발언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문성 작 '역사가 반복되길 원하는가'

갤러리 관선재 개관 기념전 31일까지 연장

최근 광주 예술의 거리에 새로운 문화공간들이 문을 열면서 예술의 향기가 짙어지고 있다. 갤러리 관선재(광주시 동구 공동 61-2)도 그런 곳 중 하나다.

개관 기념전으로 '경계를 넘어서'를 진행중인 갤러리 관선재는 당초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시를 오는 31일까지 연장 개최한다. 관선재는 서예가 보경(寶卿) 이동진 작가와 갤러리 대표를 맡은 남편 박상열씨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개관 전시는 이 작가 부부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한부철 작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전시에는 자신의 작업 세계를 일군 강남구·강운·임남진·김상연·조정태·전현수·박구환·최재영·한희원 작가 등 50대를 중심으로 중견 작가 36명을 초청했다.

전시 주제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그 경계를 넘어 다양한 협업을 꿈꾸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장품을 걸어둔 1층 카페도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다.

관선재(觀善齋)라는 이름은 이 작가가 직접 지



한부철 작 '담다줄'

었다. '선함을 바라보는 집'이라는 뜻으로 '작가들 작품의 진정성을 바라보는 집'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중들과 좀 더 가까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전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담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작가 구영웅씨가 기증한 카메라 <위>와 오디오 기기.

"100년 전 축음기 모습은 이렇습니다" 원로 사진작가 구영웅씨 영상·음향기기·악기 368점 나누시에 기증

원로 사진작가 구영웅씨가 4일 나누시에 영상·음향기와 악기 등 368점을 기증했다. 구 작가는 6·25전쟁 때부터 수집한 카메라 188점과 100년 전 제작된 축음기기를 비롯한 오디오 기기 105점, 1960년대 사용하던 오르간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악기 75점을 기증했다.

기증품에는 해방 전 사진관에서 사용하던 대형 사진기와 독일에서 제작해 전 세계에 보급된 주름 카메라,



원판필름 카메라, 120mm 필름카메라, 즉석카메라, 필름 촬영기, 영사기, 환등기, 디지털 카메라 등이 포함됐다.

또 수동식 태엽축음기를 비롯해 SP레코드와 LP레코드를 사용하던 전축, 진공관식 라디오와 트랜지스터, 부피가 큰 림북음기 등을 기증했다.

그밖에 구 작가가 기증한 악기는 1960년대 초등학교와 교회에서 사용하던 리드오르간과 바이올린, 기타, 트럼펫, 클라리넷 등 현악기와 관악기를 아우른다.

나주시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이번 기증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두 여성 건축가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

아일랜드 이본 파렐·셀리 맥나마라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이 두 명의 여성 건축가에게 돌아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 건축가 이본 파렐(69)과 셀리 맥나마라(68)가 공동 선정됐다. 두 사람은 사상 첫 여성 공동수상자인 동시에 프리츠커상을 받은 첫 번째 아일랜드 건축가가 됐다.

앞서 수상한 여성 건축가로는 2004년 이라크 출신의 자하 하디드를 시작으로 2010년 일본 건축가 세지마 가즈요(남성 1명과 공동수상), 2017년 스페인 건축가 카르메 피렐(남성 2명과 공동수상)이었다.

파렐과 맥나마라는 거대한 콘크리트로 빛어낸 압도적인 구조 속에서도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당과 휴식 공간 등 세심한 '디테일'이 잘



이본 파렐(왼쪽)과 셀리 맥나마라.

아있는 건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파렐과 맥나마라가 총감독을 맡은 2018년 제16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우리는 지구를 의뢰인으로 본다. 이는 오래 이어지는 책임을 수반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건축 철학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파렐과 맥나마라가 건축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보코니 대학 건물 외경

'출동! 슈퍼윙스' 제작사 광주 현지법인 설립

'퍼니플렉스광주' 시즌5 제작 인기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윙스' 제작사가 광주 현지법인이 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18년 광주로 유치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퍼니플렉스가 지난 달 17일 현지법인 '주식회사 퍼니플렉스광주' (대표 정길훈) 현지법인 설립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설립된 '퍼니플렉스'는 '출동! 슈퍼윙스' (2014), '엄마까투리' (2016) 등 대표작을 남겼다. 2018년에는 광주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광주지사를 설립했다. 퍼니플렉스 광주지사는 이번 법인 설립을 계기로 채용인력을 올해 25명 등 36명까지 확대하고 '출동! 슈퍼윙스 시즌5'의 제작을 광주법인이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퍼니플렉스 광주지사'가 제작할 예정인 '출동! 슈퍼윙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